

축산업 少바람...牛직하게 갑니다

〈젊을 소〉



장수농장 대표 황정민씨가 지난 11일 강진군 마량면 원포리 축사에서 자신이 키운 소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청년이 미래다

〈21〉 장수농장 황정민씨

귀농·귀촌인이라 해서 전통적인 농사에만 매달리지는 않는다. 6차산업 시대를 맞아 다양한 분야를 축산업에 접목,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 들녘을 새롭게 바꾸고 있는 귀농인들도 많다.

또 역센 축산업이 이제는 고령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가 됐다. 젊은 청년들도 이전 귀농인으로 정착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일 강진군 마량면 원포리 '장수농장'. 강진읍내에서도 25분 동안 차를 타고 가야만 다다를 수 있는 곳이 젊은 청년 귀농인 황정민(36)씨의 축산 농장이 있는 곳이다.

황씨의 농장에는 한 눈에 봐도 특실한 소들이 이방인을 반기며 건강한 소 울음 소리를 연이어 냈다. 농장주인 황씨는 지난 2011년 부산에서 일식집 주방장으로 일하던 중 귀농인의 메카인 강진으로 귀농했다. 그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갈증을 느끼던 중 18년 전 강진에 새 터를 잡은 아버지의 권유를 받고 귀농을 결정했다.

그는 자신이 그간 번 돈 5000만원과 군과 은행 등에서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한우 20마리를 구입했다. 그의 첫 시작은 미약했지만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

귀농 초기 그는 축산업 후발주자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의 선도농가들을

20대에 강진행...축산업에 다양한 분야 접목

건강한 소 생산 환경 주력...한우육종농가 선정

귀농 7년만에 한우 20마리가 120마리로 늘어

연간 매출 1억...자격증 취득 등 끊임없이 공부

“전국 90마리만 선정하는 보증 씨수소 도전”

방문, 그들만의 노하우를 익히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들을 개근할 정도로 성실히 공부해 다양한 수료증과 자격증들을 취득했다. 심지어 자신의 소를 키우면서 주경야독으로 한우인공수정사 자격증도 딸다.

그의 이 같은 노력은 축산업을 시작한 지 7년여 만에 마릿 수가 6배로 늘었다. 현재 그가 키우는 소 마릿 수는 모두 120마리다. 특히 강진한우육종연구회 소속인 그는 지난해 한우 개체별 이력관리와 맞춤형 개량 등 건강하고 우수한 사육생산 기반을 다진 공로를 인정받아 귀농한 지 7년여 만에 한우육종농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우육종농가는 한우개량사업소가 주관해 후대검정(육종농가 전단계) 농가를 거쳐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농가가 선정돼 관리되고 있다. 전남은 총 15농가로, 강진군은 도내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육종 농가를 육성하고 있다.

그는 번식우 위주의 농장이라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 생리적 환경 개선에 집중했다. 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운동량을 늘려 건강한 소를 생산하겠다는 그의 굳은 의지가 반영된 장수농장은 가족이 활동할 수 있

는 최대한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소규모 칸막이식 밀집사육 방식에서 탈피, 축사 안 회전문을 제거하고 축사 전체를 한 칸으로 개방하는 방식으로 큰 비용 없이 최대의 효과를 냈다.

또한 우수 유전자 확보와 근친교배를 피하는 등 철저한 육종기술을 실천하고 약 10만㎡의 조사료 재배지를 확보해 조사료 자급률을 높였다. 한우 20마리로 시작한 그는

현재 총 1200평의 축사에서 120마리의 한우를 사육하면서 연 매출 1억 원 이상을 올리고 있다.

부단한 노력 끝에 귀농인들의 본보기가 될 정도로 축산 전업농으로 성장한 셈이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그의 성공 소식을 전해 듣고 농장을 찾는 예비귀농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는 “전국에서 예비귀농인들이 찾아와 성공비결을 묻곤 하는데, 무작정 ‘소나 한 번 키워 볼까’라는 자세로 귀농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면서 “저도 귀농 초기 다른 한우 농가에서 1년여 간 일하면서 소에 대해 하나하나 익혔다. 책만 가지고 공부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소에 대해 기본적인 것부터 익힌 후에 귀농하면 도시 월급쟁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농양의 이익만 바라보지 않고 시장의 흐름과 소비자의 생각을 읽어야

한다”면서 “귀농이든, 귀촌이든 먼저 살게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 또 귀농 전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어설픈 지식을 믿고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축산 신기술을 적극 도입,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그의 한우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새로운 시도는 향후 축산업의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는 “지금도 농장의 모든 암소들의 출용산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라면 관심을 갖고 여전히 배우고 있다”며 “앞으로 계획 교배, 유전능력검정 등 사육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전국에 90여 마리만 선정하는 보증 씨수소 선발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글·사진=이중행기자golee@

/강진=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강진군, 귀농사관학교 운영계획 수립...귀농인 원스톱 정착 서비스 지원

강진군이 올해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귀농사관학교 운영종합계획을 수립, 귀농인 원스톱 정착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강진귀농사관학교는 영농교육을 포함, 사회·문화·복지 등 각종 귀농·귀촌교육을 원스톱으로 지원해주는 시설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군내 누적 귀농인구는 2700명(1600세대)으로, 대다수 귀농인들이 강진귀농사관학교를 거쳐 조기 정착에 성공했다.

앞서 지난해 군은 전국 최초로 귀농인지

원조례를 제정,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지원해왔다.

군은 군귀농인협의회 소속 회원이 귀농사관학교에 상주하면서 하루 평균 2~3건의 상담을 해주는 등 귀농관련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등 SNS를 통해 귀농사례·귀농정책 등 각종 프로그램과 귀농자료 등을 제공하면서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또 ‘귀농 팝투어’ 행사를 통해 지역농업 선도가·조기정착 귀농인집 방문 등 체험 프

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올해 강진귀농사관학교에서 ‘유능한 귀농귀촌인 유치 및 육성’을 목표로 귀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귀농인과 지역민이 융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 귀농인이 지역을 이해하고 공동체 안에서 어울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귀농에 도움이 필요한 예비 귀농인이 있다면 강진귀농사관학교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